

노장사상의 무(無)사유형식을 적용한 무용창작작품 「현해(玄海)」의 공간 연구*

이은정**

- | | |
|--|-------------|
| I. 서론 | IV. 결론 및 제언 |
| II. 도(道)와 무(無)사유형식의 개념 | 참고문헌 |
| III. 무(無)사유형식을 적용한 무용창작작품
「현해(玄海)」공간 구성 | Abstract |

I. 서론

본 연구는 노장사상의 ‘무(無) 사유형식’을 적용한 무용창작작품 「현해(玄海)」¹⁾의 공간에 관한 연구이다. 무(無)사유형식은 이 세계를 무(無)와 유(有)가 새끼줄처럼 꼬여있는 현상으로 존재한다고 보고, 무한하게 변화하는 도(道)의 존재방식을 무(無)와 유(有)의 두 측면으로 설명한다. 특히 노장사상은 무(無)에서 유(有)로, 다시 유(有)에서 무(無)로 환원되는 순환의 사유과정으로 세계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노장 철학적 사유형식이 작품 공간에 시각화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철학과 작품과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통해 작품의 주제성이 춤사위뿐만 아니라 작품의 공간이라는 형식적 측면에서 드러나는 과정을 밝히고, 동양철학에 기반한 창작작품의 한 형태를 제시하고자 한다.

노장사상은 인간과 자연, 그리고 이 세계를 관통하는 원리인 도(道)를 무(無)라고 파악하는 독특한 사유형식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주목받고 있는 사상이다. 여기서 무(無)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게 혼재되어있는 가능태의 상징’으로 해석된다. 도(道)를 무(無)라고 사유하는 노장사상은 이 세계를 서로 다른 개체의 꼬임으로 보며, 이를 기반으로 무한히 확장되는 변화의 가능성에 주목한다. 즉, 도(道)는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본체이면서 동시에 만물이 운동·변화하는 법칙이자 우주 자연의 생성, 소멸의 실체로써 일정한 운동성을 지니며 무규정성(無規定性), 상관대대성(相關待對性), 순환성(巡還性)의 양상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운동성 그 자체로 노장사상의 도(道)는 규정되지 않은 존재가 [무(無)] 구체성을 띠고 나타나는 새로운 존재[유(有)]와 상호의거하여 서로 순환하며 공생하는 출렁이

* 본 연구는 2018학년도 이은정의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경인교육대학교 강사, stephan317@naver.com

1) 2016년 12월 15일, 이화여자대학교 홀I공연.

는 모습으로 이 세계의 존재방식을 은유적으로 표상한다.

무용창작작품 「현해(玄海)」는 2016년 12월 15일 이화여자대학교 무용홀 I에서 공연된 작품으로, 세계를 개방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노장사상의 무(無) 사유형식에 착안하여 자연의 형상화를 통해서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우주만물의 본체이자 변화의 원리인 도(道)를 무용작품으로 표상하고자 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무위(無爲)의 철학인 노장사상에서 무(無)는 무엇을 의미하며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고 있는 현대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위개념을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서 시작하였다. 연구를 통해 무(無)라는 개념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규정되지 않는 모든 것'으로 설명할 수 있었으며, 고정되고 규정된 인식의 한계에서 벗어나 무한의 가능성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노장 특유의 개방적인 사유방식을 '물'이라는 소재로 작품을 진행하였다.

특히 노장철학은 특히 물(水)에 주목하는데, 물은 천하 만물의 모체이며 소리와 형태가 없어서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신화적 존재, 즉 인간의 인지 영역을 벗어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노장 철학에서 물은 무한한 변화를 이루는 도(道)를 표상하는 대표적인 은유개념으로 바다는 물 중에서도 가장 큰 존재로서, 끊임없이 흘러 이 우주의 생성 소멸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표상하는 존재이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우주만물이라는 개체 안에 존재하며 모든 만물은 생성 소멸의 변화과정 속에 임시로 존재하는 '흔적'과 같은 존재이다. 이에 무용창작작품 「현해(玄海)」는 무한한 가능성 속에서 자연과 함께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노장의 사유를 바다에 투영하여 표현하였다. 여기서 '현해(玄海)'는 노장에서 도(道)를 상징하는 색채개념인 '현(玄)과 무규정성의 대표은유인 '바다(海)'를 결합한 용어로, 이는 노장사상에서 절대 무(無)의 경지를 의미하는 '현해(懸解)'라는 개념을 차용한 본 연구자의 새로운 해석이다. 이에 모이고 흩어지며 생성하고 변화되고 다시 거대한 바다로 흘러가서 대자연의 순환으로 돌아가는 바다의 모습을 은유하여 도(道)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무용창작작품 「현해(玄海)」의 작품의 공간구성에 있어 바다를 모티브로 하여 노장사상에 나타난 무한대(새끼꼬임) 도식, 일획(一劃)도식, 도추(道樞)도식 및 노장사상과 작품세계가 밀접한 이우환의 회화작품을 기반으로 공간을 구성함으로써 다각적 방법으로 도(道)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첫째, 도가철학과 관련한 단행본, 논문, 학술지 등의 문헌 자료를 통해 노장사상의 무(無)사유형식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다루며 작품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 둘째, 무용창작작품 『현해(玄海)』의 공간분석을 통해 형이상학적인 도(道)의 개념이 시각화 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특히 노장사상의 다양한 도식 및 회화작품과 같은 풍부한 이미지는 작품의 춤사위와 공간 구성에 활용됨으로써 주제를 시각화하는 주요한 매개체가 되었으며, 이에 시각매체를 활용한 작품공간과 노장사상과의 상관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셋째, 노장사상과 작품과의 상관성을 철학 및 무용 전문가의 교차 검증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노장사상과 예술작품에 관한 선행 연구로는 조민환²⁾, 장선아³⁾, 최지영⁴⁾, 손형우⁵⁾, 이화진⁶⁾ 등이 있으며 동양예술에 근간이 되는 노장사상과 회화, 미디어아트, 음악, 무용 등의 작품과 노장의 사상성의

2) 조민환(1991), 노장의 미학사상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3) 장선아(2013), 석도화론의 생성론적 특성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4) 최지영(2005), 한국 모노크롬 회화의 정신성에 관한 연구: 노장사상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5) 손형우(2014), 노장을 통해 본 백남준의 미디어아트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6) 이화진(2016), 노장사상 역전에서 본 한국 전통춤 무태양상과 사상성 고찰, 『무용예술학연구』, 58, pp.65-78.

관계를 밝히는 연구로 진행되었다. 단, 무용분야에 있어서는 전통춤을 동양적 시각에 접근하여 춤의 사상성을 제시하는 연구 외에 노장사상과 연관하여 다루어진 연구는 매우 적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작작품의 공간을 다각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노장사상이 작품으로 시각화 되는 과정을 밝히고, 동양철학적 사상에 근거한 한국창작춤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에 의의가 있다.

II. 도(道)와 무(無)사유형식의 개념

도(道)는 노장사상의 핵심으로 궁극의 존재에 대한 개념이자 우주만물의 동적 생성 변화의 섭리이다. 『도덕경』1장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道可道, 非常道)”, 32장에서는 “영원한 도는 이름이 없다(道常無名)”, 41장에서는 “도는 숨어서 이름을 붙일 수 없다(道隱無名).”고 기술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서술을 통해 도는 언어로 규명될 수 없는 존재이자 고정화 될 수 없는 존재로 표현된다. 이렇듯 도는 언어로는 설명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노장사상에서 다양한 은유의 방식들로 표현된다. 정석도는 언어적 가치분별에 의해 상대화된 논리들, 예를 들면 아름다움과 추함과 같은 대립된 논리들이 도의 개념을 통해 ‘하나(一)’로 전일화되는 사유방식을 보인다고 이해하였다.⁷⁾ 아름다움과 추함은 상대적 개념이 아니라, 추함도 아름다움으로 수렴될 수 있는 존재로 ‘추한 아름다움’을 역설한다. 이는 『도덕경』 14장에 언급된 ‘형상 없는 형상’, ‘모습 없는 모습’, ‘홀황’의 개념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으며, 노자는 도가 인식능력에 드러나지 않는 ‘구별되지 않는 하나(混一)’라는 관념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도는 무규정의 상태, 무차별의 상태로 시간성과 공간성을 내포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은유되며, 언어적 인식을 초월한 방법으로서의 은유를 통해 도(道)를 암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노자의 무(無) 사유형식은 이 세계의 존재양식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도(道)라는 생성근원과 최초의 변화로부터 만물이 분화되어 나오는 과정을 계보학적으로 사유하는 본체생성론적 사유형식이고, 두 번째는 만물이 고정불변의 영원한 본질을 갖지 않고 생성 변화의 과정 속에 있다고 사유하는 상관대론적 사유형식이다.⁸⁾ 특히 『도덕경』42장에는 “도는 하나(一)를 낳고, 하나(一)는 둘(二)을 낳고, 둘(二)은 셋(三)을 낳으며, 셋(三)은 만물(萬物)을 낳는다(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고 하여 도의 분화과정에 대해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해석의 관점에 따라 본체생성론과 상관대론으로 구분된다. 본체생성론은 우주자연의 변하지 않은 근원으로서 도(道)를 이해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반면 상관대론적 사유형식은 본체이자 시작점으로써의 도(道)의 의미를 배제하면서,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우주자연의 흐름에 초점을 두고 이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변화의 방식을 도의 개념으로 이해한다. 상관대론적 사유형식은 무와 유, 양과 음의 관계에서 이 세계를 바라봄으로써 무, 유가 서로 상대적인 관계에 있다는 유무상생(有無相生)의 입장을 취한다.⁹⁾

본체생성론에서는 천지의 시작, 출발점으로써의 도에서 파생된 우주의 발생에 관해 집중하였다면,

7) 정석도(2014), 노자 미학의 사유형식과 은유·은폐의 논리, 『동양철학연구』, 78, pp.134-135.

8) 김백희(2006), 『노자의 사유방식』(파주: 한국학술정보), p.23.

9) 최진석(2001), 『노자의 목소리로 듣는 도덕경』(경기: 소나무), pp.40-45, 338-340.

상관대대론적 입장은 이 세계가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고 변화해 가는지에 집중한다. 이는 노장사상의 핵심이 드러나 있는 『도덕경』 1장¹⁰⁾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텅 빈 공간이며 사물을 존재하게 하는 무(無)는 이 세계의 구체적인 것들이 시작되는 교차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벌어진 것과 닫혀짐이 교차하는 지점이다. 즉, 상관대대론적 사유형식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텅 빈 공간에 무와 유가 같은 차원에서 서로 공존하고 있는 상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도덕경』 2장¹¹⁾에서는 노자철학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유무상생(有無相生)”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에서는 쉽고 어려움은 똑같으며, 쉬움은 어려움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쉬운 것이 되고, 어려움도 쉬운 것과의 비교 관계 속에서 비로소 어려운 것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즉, 두 존재의 상대적인 차이의 관계 속에서 개체는 매 순간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상관대대론적 사유형식은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은 반대편 것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그것이 된다고 보며, 모든 것은 반대편을 향해 항상 열려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즉, 이 세계는 대립되는 개체들이 꼬여서 이루어진 형상으로 존재하며 이러한 존재 형식 내지 원칙에 도(道)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지, 본체생성론이 주장 하듯 도가 이 세계의 발생 근원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상관대대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이 세계는 반대편을 자신의 존재 근거로 하면서 얽혀 있는 모습으로 존재하며, 이는 세계의 존재 형식이자 운행 원칙이 된다. 이어 『도덕경』 40장에서도 무(無)와 유(有)가 공존하는 원리에 대해 밝히고 있다.

반대편으로 향하는 것이 도의 운동 경향이고 유약한 것이 도가 작용하는 모습이다. 만물은 유에서 살고 유는 무에서 산다.¹²⁾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무(無), 유(有)가 같은 차원에서 반대편을 향해 공존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즉, 이 세계의 만물은 유(有)라는 범주 안에 살고, 유(有)는 무(無)의 범주에 자신의 존재 근거를 두며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 등장하는 생(生)의 의미는 본체생성론적 사유형식과 반대 의미로 “살다”, “산다”의 의미를 지닌다.

이처럼 상관대대론적 사유형식에서 “道 → 一 → 二 → 三 → 萬物”의 도식은 본체생성론과는 다른 방식으로 해석된다. 도는 유/무, 음/양, 장/단 등의 대립면들이 서로 꼬여서 존재하는 세계의 그 원칙을 나타내는 범주로서 이 원칙은 “도생일(道生一)” 즉, 이 세계를 이루는 단 하나(一)의 원칙이자 관념을 이룬다. 이어 “일생이(一生二)”는 대립되는 두 개체가 꼬여있는 현상으로 이는 일(一)이라는 원칙 아래 의미와 존재성을 부여받으며 산다. “이생삼(二生三)”은 대립되는 두 면을 통해 어떤 것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며, 비가시적인 텅 빈 무의 공간에 가시적인 유의 존재가 드러날 수 있음을 표상한다. 마지막으로 “삼생만물(三生萬物)”은 ‘삼(三)’의 존재가 만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삼

10) 『道德經』 1장. “이름 없음이 천지의 시작이며, 이름을 가짐은 만물의 어머니이다. 그러므로 항상 무욕으로써 도의 묘함을 보며, 유욕으로써 도의 끄트머리 갈래를 본다. 이 둘은 함께 나왔으나 이름이 다르다. 그 같은 것을 일컬어 현묘라 한다. (無名 天地之始 有名 萬物之母 故常無欲以觀其妙 常有欲以觀其 此兩者 同出而異名 同謂之玄)”. 이강수(2007), 『老子』(서울: 도서출판 길), p.37.

11) 『道德經』 2장. “유와 무는 서로를 낳고,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 이루어주고, 길고 짧음은 서로 드러내고, 높음과 낮음은 서로 채워주고, 음과 성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앞과 뒤는 서로 따르니 이것이 세계의 항상 그러한 모습이다.(有無相生, 難易相成, 長短相形, 高下相傾, 音聲相和, 前後相隨, 是以)”. 앞의 책, pp.42-43.

12) 『道德經』 40장. “反者, 道之動, 弱者, 道之用, 天下萬物生於有, 有生於無”. 앞의 책, p.177.

(三)들을 합해 놓은 것이 만물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상관대대론적 사유형식은 무와 유가 서로 같은 층차에서 서로 공존하며 변화하는 ‘유무상생(有無相生)’의 도식으로 이 세계를 이해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노자의 상관대대론적 분화의 도식

	생성의 단계	존재의 상태	生자의 해석	유무의 관계
노자의 상관대대론적 분화 과정	道	無 → 有 有 → 無	살다. 생활하다.	유무상생 (有無相生)
	↓ 一 ↓ 二 ↓ 三 ↓ 萬物			

이와 같이 본체생성론과 상관대대론적 사유형식은 “道 → 一 → 二 → 三 → 萬物”에 대한 도식을 다르게 해석하면서 이 세계의 존재양식에 대해 논하고 있다. 특히 상관대대론적 사유형식은 도가 하나의 일점기원이 아닌, 이미 갈라진 대립되는 개체와의 관계 속에서 변화되는 현상 속에 존재함을 주지하고 있다.

『도덕경』 1장에서는 무(無), 유(有)를 ‘묘(妙)’, ‘요(徼)’와 연결시켜 표현하기도 하는데, 무(無)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듯 하지만 유(有)가 존재하고 쓰임새가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존재 상태로 있는데 이런 상태를 ‘묘(妙)’로 표현한다. 이는 서로 다른 개체가 상호·대립으로 대립되지 않고 묘합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반면, 유(有)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존재로써 경계선을 의미하는 ‘요(徼)’의 개념은 만물의 모든 차이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다. 이렇게 이 세계는 시작이 없는 시작인 무(無)에서부터 서로간의 접목과 갈라짐을 통해 끊임없이 차이와 반복을 반복하는 흔적이 도(道)인 것이다. 이로써 상관대대론적 사유형식의 도식의 가장 끝에 존재하는 만물(萬物)은 무와 유의 양 측면의 접목과 차이를 반복한 흔적이 된다. 따라서 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존재하며 그때마다의 다른 것과 보충대리의 과정 속에 매번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다.¹³⁾ 이러한 도의 특성을 『도덕경』 1장에서는 ‘중묘지문(衆妙之門)’으로 표현하였는데, 이는 ‘비동시적인 것들의 동거’, ‘불가능한 공존’을 의미한다.¹⁴⁾ 문(門)의 존재는 두 공간을 이어주는 접목의 매개체이자 이쪽 공간과 저쪽 공간의 차이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며, 이는 도의 모습을 상징한다.

결론적으로 무(無)사유형식에 드러난 도(道)의 특성은 무규정성, 상관대대성, 순환성의 운동성으로 드러난다. 무규정성은 서로 다른 존재가 ‘일(一)’의 상태로 존재하며 마치 새끼줄처럼 꼬여있는 모습의 도식(∞)으로 표상된다. ‘이(二)’의 세계는 사물의 구별이 생기고 구분된 양면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며 대립면들이 서로 의존하고, 서로 포함하고, 전환되는 대대(待對) 관계 속에서 변화한다. ‘삼(三)’의 세계는 궁극적으로 대립면들이 무(無), 일(一)의 존재로 돌아가며 끊임없이 반복의 순환 속에 존재하는 이 세

13) 한국도가철학회(2001), 『노자에서 테리다까지』(서울: 예문서원), p.284.

14) 앞의 책, p.277.

계를 표상한다.

이처럼 무(無)사유형식은 이 세계의 존재양식에 대하여 사유하며 변화와 생성의 존재론을 추구함으로써, 변화무쌍한 이 세계를 바라보고 고정되지 않는 도(道)의 의미를 전달한다. 이 세계의 변화를 상징하는 도의 운동성과 도식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도의 운동성과 도식

무규정성(無規定性)	상관대대성(相關待對性)	순환성(巡還性)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一)의 세계 · 서로 다른 존재가 일(一)의 상태로 존재하며 마치 새끼줄처럼 꼬여있는 모습을 상징 · 무규정의 상태, 모든 규정성이 상대화 되거나 무력해지는 무차별성의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二)의 세계 · 사물의 구별이 생기고 구별된 양면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형상(음/양) · 각 개체가 극한에 이르면 반대의 방향으로 복귀 · 부단한 복귀의 운동성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三)의 세계 · 대립면이 대대적 관계속에서 서로 변화해 가는 현상들이 끊임없이 반복, 순환을 이룸 · 변화의 양상이 원을 이루며 순환하며 영구히 존재함 · 차이와 반복의 무한 순환의 논리
무한대(새끼꼬임)도식	일획(一劃) 도식	도추(道樞) 도식

III. 무(無)사유형식을 적용한 무용창작작품 「현해(玄海)」공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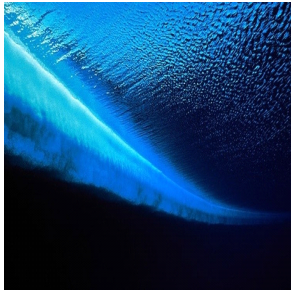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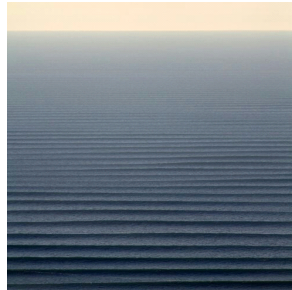
무용창작작품 「현해(玄海)」는 노장철학의 근거를 바탕으로 작품의 공간에 주제성이 드러나도록 안무함으로써 형식적 측면을 통해 무한함으로 확장되는 노장의 사유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노장 사상은 자연현상에서 드러나는 운동성을 도(道)의 움직임으로 바라보았으며 본 작품에서는 도의 운동성인 무규정성, 상관대대성, 순환성을 작품의 틀로 수용하여 춤사위, 공간구성, 무대표현매체에 적용하였다. 특히 노장사상에서 드러나는 도(道)의 분화 도식인 ‘하나의 세계(一)’, ‘둘의 세계(二)’, ‘셋의 세계(三)’는 노장이 이해하는 이 세계의 존재방식의 핵심이며, 이를 기반으로 무(無)의 세계, 유(有)의 세계, 무(無)와 유(有)의 세계로 작품을 3장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또한 주제가 효과적으로 잘 드러나도록 각 장의 주제와 일맥상통하는 노장의 도식과 노장철학에 영향을 받은 이우환의 회화작품의 도식을 차용하여 작품에 적용시킴으로써 공간구성이 주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미학적 측면으로까지 확장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이우환의 작업은 점과 선이 공간과 시간 속에 나타나고 다시 사라지는 모습을 통해 존재의 생성, 소멸을 표현하고,¹⁵⁾ 무한함으로 가득찬 여백에 점과 선을 찍는 행위로부터 한정됨에 얽히지 않으며 무한히 변화할 수 있는 가능태를 획으로 표현한 석도화론의 진행과정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¹⁶⁾ 노장철학에 근거한 각 장별 내용과 공간 구성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15) 김귀숙(2003), 한국 모노크롬 회화의 정신성: 노장사상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36.

16) 이우환(2002), 『여백의 예술』(서울: 현대문학), pp.18-20.

〈표 3〉 무용창작작품 「현해(玄海)」의 내용 및 공간 구성

	1장	2장	3장
소재목	묘(妙)	요(徼)	현해(玄海)
주제	<p>무규정적인 무한의 가능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無)의 세계 · 서로 다른 존재가 꼬여있는 하나(一)의 세계 	<p>대립되는 음/양의 상관대대 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有)의 세계 · 음양으로 분화되는 둘(二)의 세계 	<p>대립되는 개체가 순환을 이루며 끊임없이 출렁이는 상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無)와 유(有)의 세계 · 대립되는 양면의 존재가 순환을 이루는 셋(三), 만물의 세계
			
표현 이미지			
	심연의 바다	수면의 경계에서 몰아치는 파도	봉새의 시각에서 보는 대우주 속 물결의 흔적을 남기는 바다
차용 도식	무한대(새끼꼬임)도식	일획(一劃) 도식	도추(道樞) 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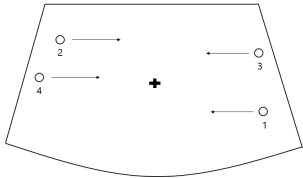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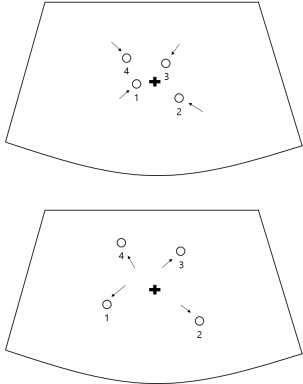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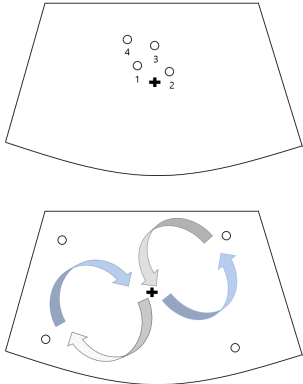
1. 「현해(玄海)」 1장- 무(無)의 공간 구성

1장은 시초를 알 수 없는 근원과 그 근원에서 파생된 서로 다른 세계가 혼재해 있는 현상이 ‘묘(妙)’의 세계로써, 이 장에서는 노장철학에서 드러나는 만물이 존재하고 있는 무한(無限)의 상태를 표현하였다. 이름이 없고 구별이 없는 현(玄)의 상태를 표현한 이 장면에서 무용수는 심연의 바다 속에 떠다니는 분자(分子)들의 모습으로 이미지화 된다. 만물의 분화과정은 점(點), 선(線), 면(面)으로 이어지는 도식으로 표현 될 수 있는데 1장에서는 점의 형태로 무한히 가변적인 형태로 떠다니는 존재의 형상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에 1장의 공간은 도(道)의 무규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형태가 없는 전체 공간을 사용하였으며, 이우환의 회화작품 <조용>(1992), 그리고 무한대(새끼꼬임) 도식을 활용함으로써 어느 방향, 어떤 형태로든 변화 가능한 점들의 움직임으로 공간을 시각화하였다.

또한 무용수는 각자 점(點)이 되어 무한의 공간인 심연의 바다 속에서 앞, 뒤, 옆으로 막힘이 없는 움직임을 보여줌으로써 규정되지 않은 생명의 존재를 표현하였다. 각 점들을 상징하는 무용수들의 움직임과 공간 구성은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한 도(道)의 모습을 형상화한다. 특히 이 장에서는 이러한 무규정적이고 가변적인 주제와 공간의 표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심연의 바다의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도록

짙은 파란색의 무빙조명을 사용하여 유동적 이미지를 극대화하여 표현하였다. 장면별 공간 구성과 표현적 의미의 상관관계는 <표 4>와 같다.

<표 4> 1장 무(無)의 공간 분석 및 표현적 의미

장면구성	작품 공간 분석	표현적 의미
	<p>어두운 미지의 공간 속 무용수는 마치 바다 속에 떠다니는 분자(分子)의 형태를 상징하며 등장.</p>	
	<p>이우환의 <조음> (1994) 회화작품을 모티브로 무용수들은 하나의 점(點)이 되어 어느 방향, 어느 형태로든 변화할 수 있는 미완의 형태를 표현하며 다른 방향을 향한.</p>	
	<p>-무대의 중심으로 점차 모이고 벌어지기를 반복하면서 공간의 범위가 좁고 넓게 대조를 이루는 응축과 확장의 구성을 보여주며 무한히 변화할 수 있는 개체의 생명성을 표현.</p> <p>-각자의 움직임에서 여럿의 움직임으로, 또 다시 각자의 움직임으로 개체화되는 과정 속에 점으로 표현된 움직임의 형태가 점차적으로 확장되며 무한한 가능성으로 확장되는 개체의 모습을 보여줌.</p>	<p>무한 (無限)의 미 :</p> <p>무한한 가능태의 상징</p>
	<p>-응축과 확장의 공간을 반복하다가 무대 중앙의 뒤에 모이면서 하나의 거대한 점의 형태가 되는데, 이때 무용수들의 공간은 밀도감 있게 구성되어 꿈틀거리는 생명의 모습을 극대화하여 표현.</p> <p>-이어 무용수들은 내재되어 있는 생명성이 폭발하듯이 전체 공간으로 확장되어 무한대(새끼꼬임)의 형상을 이루며 모든 가능성들이 섞여있는 모습을 무한대 도식으로 시각화.</p>	

1장 무(無)의 공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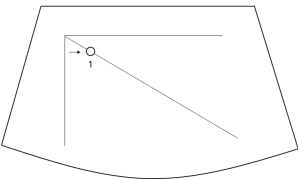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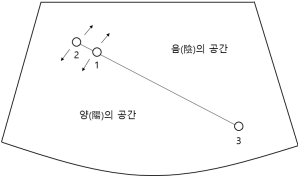

- 규정지을 수 없고 무한히 꼬여있는 비가시적인 무(無)의 세계를 수면아래에 존재하는 심연의 공간으로 상징화
- 이우환 <조음>의 회화도식을 차용한 점의 궤적을 공간에 투영
- 응축과 확장의 공간 사용으로 인한 가변적 공간 이미지 창출
- 무한대(새끼꼬임)도식을 기반으로 형태가 없는 공간을 사용함으로써 무한의 미를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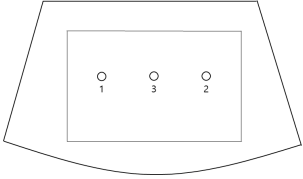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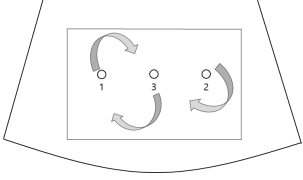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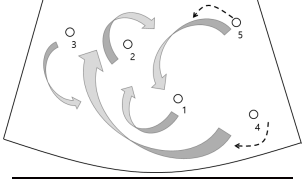

2. 「현해(玄海)」 2장- 유(有)의 공간 구성

2장에서는 점(點)의 형태가 선(線)으로 변화되는데, 일획(一劃)의 등장으로 만물은 음(陰)과 양(陽)의 대립되는 성질로 분화되며, 이렇게 서로 다른 존재들이 대립·조화를 이루며 대대적으로 변화하는 ‘역동의 세계’를 표현하였다. 이 장에서는 무한한 공간 안에서 한 획을 그음으로 인해 만물이 생겨나게 된다는 석도의 일획론과 이우환의 회화작품 〈선으로부터〉(1974)를 기반으로 공간을 구성하여, 음과 양의 상관대성에 의해 이 세계가 역동적으로 변화한다는 주제를 시각화하였다.

1장의 공간이 무형(無形)을 상징하는 새끼꼬임을 형상화하였다면, 2장에서는 선의 공간으로 변화되며 일획을 상징화한다. 이때 선은 ‘경계’의 상징으로 음과 양을 나누는 존재가 되는데, 이에 무용수들은 분리된 두 공간을 이동하며 음양의 대비를 표현한다. 특히 노장사상에서는 이 세상에는 고정된 형태는 없다고 간주하며 규정되고 정의되는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무한히 확장되는 선(線)의 공간 속에서 음과 양의 기운이 대립되고 조화되는 역동적인 변화의 모습을 마치 수면의 경계에서 위, 아래로 끊임없이 몰아치는 파도의 형상으로 표현하였다. 장면별 공간 구성과 표현적 의미의 상관관계는 <표 5>와 같다.

<표 5> 2장 유(有)의 공간 분석 및 표현적 의미

장면구성	작품 공간 분석	표현적 의미
 	<p>이우환 〈선으로부터〉(1974) 회화작품을 모티브로 일획의 등장으로 인해 음양의 양면으로 분화되는 공간을 표현.</p> <p>-한명의 무용수는 하나의 세계에서 둘의 세계로 이어지는 시작을 알림.</p> <p>-일직선의 존재는 서로 다른 존재가 맞닿아 있는 시작점으로 이 경계로 인해 음과 양의 성질로 드러나는 모습을 상징.</p>	<p>역동(逆動)의 미:</p> <p>생동하는 변화의 상징</p>
 	<p>-일직선상의 양 끝 지점과 직선으로 인해 분리된 두 공간이 음과 양을 상징하며 개체들의 대립과 조화를 표현.</p> <p>-무용수들은 음과 양의 경계를 넘나들며 열려있는 세계 속의 변화의 모습을 시각화.</p> <p>-일획의 경계 위에서 이루어지는 공간 구성은 수면의 경계에서 일렁이는 파도의 이미지로 시각화.</p>	

	<p>-무대 중앙에 수평의 일렬구조를 만들며 일 회를 상징하는 경계의 형상을 보여줌. 이후 이 경계위에서 각각의 무용수는 음과 양으로 갈라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무용수는 따로 또는 같이 움직임과 동시에 직선의 공간에서 곡선의 공간으로 확장되며 모이고 흩어지는 개체의 역동성을 공간에 시각화.</p>
	<p>-‘멀어지면 되돌아온다’는 반(反)의 원리에 의한 구성으로서 서로간의 개체가 극에 달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상관대대성의 원리를 공간에 적용.</p>
 	<p>-경계는 허물어지고 무용수들은 전체 공간을 휘감아치는 파도가 되어 음과 양의 경계가 없는 변화의 형상을 역동적으로 드러냄.</p> <p>-‘둘의 세계(二)’의 표현이며, 구별 없는 무명(無名)의 혼돈에서 분화된 개체가 대대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습이 역동적으로 발현됨.</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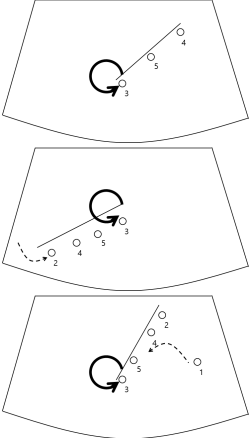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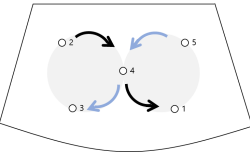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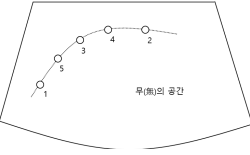
2장 유(有)의 공간 구성

- 양면으로 갈라지고 다시 되돌아오는 도의 상관대대성을 수면의 경계에서 몰아치는 파도의 형상으로 상징화
- 이우환 <선으로부터>의 회화도식을 차용한 선의 궤적을 공간에 투영
- 분리된 양면의 공간을 넘나드는 역동적 공간 이미지 창출
- 일회도식을 기반으로 경계에서 이루어지는 개체간의 변화를 시각화하여 역동의 미를 표현

3. 「현해(玄海)」 3장- 무(無)와 유(有)의 공간 구성

3장은 1, 2장에 드러나는 모든 세계가 순환을 이루는 장으로, 선으로 규정되는 세계가 순환적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노장의 도추(道樞)도식과 이우환의 회화작품 <점으로부터>(1976)를 기반으로 공간을 구성하였다. 특히 3장에서는 2장에서 활용한 선의 형태가 끊임없이 돌아가며 원으로 순환되는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이를 통해 도(道)라는 큰 원칙 안에서 만물은 끊임없이 순환을 이루며 출렁이는 모습으로 유동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노장의 사유를 공간에 투영시켜 표현한 것이다. 이처럼 1장부터 3장으로 전개되면서 무한한 공간, 경계 지워진 공간, 경계가 해체되고 순환을 이루는 공간으로 변화되며, 이는 구체적으로 심연의 바다, 몰아치는 파도, 봉새의 시각에서 보는 물결의 구체적 이미지로 형상화된다. 장면별 공간 구성과 표현적 의미의 상관관계는 <표 6>과 같다.

〈표 6〉 3장 무(無)와 유(有)의 공간 분석 및 표현적 의미




장면구성	작품 공간 분석	표현적 의미
	<p>이우환 〈점으로부터〉(1976) 회화작품을 모티프로 점-선-면으로 이어지는 조형요소를 공간에 적용</p> <p>-셋(三)의 세계로 이어지는 노장의 사유형식을 1,2장의 도식을 종합하여 구성.</p> <p>-봉새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끊임없이 흘러가는 바다의 물결이미지로 시각화.</p>	
	<p>-끊임없이 규정하고 경계짓는 인간의 숙명을 일획의 모습으로 형상화.</p> <p>-일렬은 반시계 방향으로 원의 형태를 그리며 이동하며 이우환의 회화작품의 도식을 시각화.</p> <p>-음과 양의 공간, 그리고 선의 공간 위의 양 끝단에 존재하는 음과 양의 개체들이 끊임 없는 순환을 통해 무수히 생성하고 소멸되고 있음을 드러냄. 이는 도(道)라는 원리 안에서 음과 양의 형상을 달리하며 무궁히 변화하는 개체의 존재방식을 순환하는 공간 구성으로 표현.</p>	<p>순환(巡還)의 미: 무궁한 변화의 상징</p>
	<p>-1장의 대표 도식인 무한대의 모습을 시각화하며 끊임없이 순환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작품의 핵심 주제를 전달.</p> <p>-무한대의 형상으로 순환되는 모습을 공간상에 그려내며 경계를 지우고 무(無)로 회귀하고자하는 작품의 주제를 구체적으로 드러냄.</p>	
	<p>-무용수들은 음양의 형상으로 분화되었다가 다시 회귀하고, 시간차를 두고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며 멀어지고 돌아오는 반(反)의 운동성을 시각화.</p> <p>-계속적으로 경계를 지워나가고 무(無)로 회귀하는 표현적 의미.</p>	
	<p>-하수 뒤쪽에 도(道)를 은유하는 그릇 모양의 공간을 만들며 상수 쪽에 존재하는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끊임없이 출렁이는 이미지를 형상화.</p>	

3장 무(無)와 유(有)의 공간 구성

- 영구히 순환하는 도의 모습을 봉새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출렁이는 물결의 공간으로 상징화
- 이우환 〈점으로부터〉의 회화도식을 차용한 원형의 궤적을 공간에 투영
- 경계를 해체함으로써 무(無)로 회귀하는 공간 표현
- 개체가 순환 속에서 무궁한 변화에 대응하며 존재하는 모습을 시각화하며 순환의 미를 표현

이처럼 작품 1장에서는 ‘무규정성’의 운동성을 개체가 무한히 꼬여있는 무한대 새끼꼬임도식으로 시각화하여 무한한 가능태를 상징하였으며, 2장에서는 ‘상관대대성’의 운동성을 대립되는 개체가 서로 상호전화되며 회오리치는 현상으로 시각화하여 생동하는 변화를 상징하였다. 마지막 3장에서는 ‘순환성’의 운동성을 존재가 무한순환을 이루며 출렁이는 도추도식을 시각화함으로써 무궁한 변화를 상징하였다.

본 작품의 근거가 되는 노장철학의 이론적 측면과 작품의 공간구성과의 상관성을 분석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작품 구성	도의 운동성	차용도식	표현 이미지	표현적 의미	
1장 묘(妙)	무규정성 대립되는 존재가 무한히 꼬여있는 상태		무한대 (새끼꼬임) 도식, <조음>회화	심연의 바다	‘무한의 미’ 무한한 가능태의 상징
2장 묘(微)	상관대대성 대립되는 존재가 상호전화(轉化)되는 변화의 상태		일획 도식, <선으로부터>회화	수면의 경계에서 회오리치는 파도	‘역동의 미’ 생동하는 변화의 상징
3장 현해(玄海)	순환성 대립되는 존재가 무한순환을 이루며 출렁이는 상태		도추 도식, <점으로부터>회화	봉새의 시각에서 보는 출렁이는 물결	‘순환의 미’ 무궁한 변화의 상징

<그림 1> 무용창작작품 「현해(玄海)」의 이론적 측면과 공간 구성의 상관성 분석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장사상의 무(無) 사유형식을 적용한 무용창작작품 「현해(玄海)」의 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이다. 연구자는 노장철학이 작품 공간에 시각화 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철학과 작품과의 상관관계를 밝힘으로써 동양철학에 기반한 한국창작작품의 한 형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무용작품에서의 공간은 안무자의 세계관을 드러낼 수 있는 요소 중의 하나로 무용수들이 움직이는 공간 속에서 관객들은 직관적으로 메시지를 읽고 소통할 수 있는 장소성을 갖는다. 이에 연구자는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도(道)의 개념을 무규정성, 상관대대성, 순환성의 운동성으로 파악하고 이를 표상하는 새끼꼬임도식, 일획도식, 도추도식을 활용하여 다양한 이미지를 탐색하고 작품 공간에 투영하였다. 더불어 노장철학에 영향을 받은 이우환의 회화작품을 작품에 적용하여 공간을 조형적으로 구성함과 동시

에 의미 있는 공간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안무하였다. 특히 이우환 회화에 드러난 점, 선, 면의 조형구조는 노장의 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직관적인 형태로써, 작품공간에서 점, 선, 면으로 공간을 구성하며 무한히 확장되는 노장의 사유형식을 바다의 이미지로 시각적으로 형상화하였다. 이를 통해 규정지워진 인식의 한계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계속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무한함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주제성을 공간에 투영하고 노장철학에 근거한 공간구성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계의 존재방식이자 인간, 자연, 그리고 세계를 관통하는 원리인 도(道)를 도식화하고 이를 작품 공간에 구성하는 과정을 분석하여 철학과 작품과의 상관성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무(無)의 공간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닌 무한하게 혼재 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작품 공간에서는 대립되는 존재들이 새끼줄처럼 꼬여있는 무한대 도식으로 시각화되어 ‘무한한 가능태’의 의미를 전달하였다. 둘째, 유(有)의 공간은 역동의 세계이자 변화의 상징으로 작품에서 음과 양으로 구분된 대립되는 양면이 작용과 반작용을 이루는 공간으로 표현됨으로써 ‘변화의 역동성’의 의미를 전달하였다. 셋째, 무(無)와 유(有)의 공간은 순환의 세계이며 끊임없이 출렁이는 혼적의 세계로 작품에서 원형의 형태로 개체가 끊임없이 순환, 반복을 이루는 도추도식으로 표현되어 ‘무궁하게 변화’하는 삶의 이치를 전달하였다.

현재 노장사상은 규정될 수 없는 세계에 대한 사유를 지향하고 무한한 변화의 흔적을 통해 삶을 바라보는 유연한 시각을 제시하며 동·서양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도(道)는 동양미학적 측면과도 밀접한 관계를 지니며 많은 예술분야에 영향을 끼쳐왔다. 특히 무기교, 무형식으로 점철되는 한국춤의 미적특성은 고정되었다 해체되기를 반복하며 노장의 무(無) 사유와도 연결되는데 아쉽게도 이와 관련된 논문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무궁한 변화와 개방적 태도를 지향하는 노장철학은 앞으로 다양한 작품의 소재로 연구될 가치가 있다고 사료되며 본 연구를 통해 철학기반 무용 창작작품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道德經』

『莊子』

『郭象莊子注』

石濤, 『畫語錄』

김백희(2006). 『노자의 사유방식』. 파주: 한국학술정보.

이강수(2007). 『老子』. 서울: 길.

이우환(2002). 『여백의 예술』. 서울: 현대문학.

최진석(2001). 『노자의 목소리로 듣는 도덕경』. 서울: 소나무.

한국도가철학회(2001). 『노자에서 데리다까지』. 서울: 예문서원.

김귀숙(2003). 한국 모노크롬 회화의 정신성 : 노장사상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손형우(2014). 노장을 통해 본 백남준의 미디어아트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은정(2018). 노장사상의 무(無)사유형식을 적용한 무용창작작품 「현해(玄海)」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장선아(2013). 석도화론의 생성론적 특성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조민환(1996). 노장의 미학사상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최지영(2005). 모노크롬 회화의 정신성에 관한 연구: 노장사상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화진(2016). 노장사상 역전에서 본 한국 전통춤 무태양상과 사상성 고찰. 『무용예술학연구』, 58: 65-78.

정석도(2014). 노자미학의 사유형식과 은유·은폐의 논리. 『동양철학연구』, 78: 123-150.

이은정(2016). 무용창작작품 「현해(玄海)」 이화여자대학교 무용과 홀I. pm 3:30 (DVD 15min 35sec.)

논문투고일 2021. 05. 15.

심사일 2021. 06. 04.

심사완료일 2021. 06. 09.

Abstract

A Study on the spatiality of “*Hyeon-hae* (Dark Sea)” Incorporating No-Reason Form of Lao-Tzu and Chuang-Tzu’s Taoism

Lee, Eun Jung

Lecturer of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pace of the creative dance work “*Hyeon-hae* (Dark Sea)”, in application of Lao-Tzu’s philosophy of “no-reason form.” The philosophy of no-reason form views the changes in the world as a process of a continuous cycle that is generated from emptiness to something, and reduced from something to emptiness.

Hyeon-hae uses the space referencing the various diagrams of Lao-Tzu and Chuang-Tzu and art works of Woohwan Lee to express ‘*dao*’ in diverse metho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orrelation between Taoism and the dance work by examining the process of visualizing Lao-Tzu’s philosophical form of emptiness. Through this, the paper aims to clarify the process in which the theme of the dance work is revealed not only in the movements, but also in the formal aspect of the dance space. Hence, the study presents one aspect of the creative dance work that is based on Eastern philosophy.

Keywords: Taoism of Lao-Tzu and Chuang-Tzu(노장사상) , No-reason form(무 사유형식), Diagram(도식), Creative dance work(창작작품), Space of dance work(작품 공간)